월요광장

당당함과 오만, 그 섬뜩한 한 끗 차이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어느 고위 공직자의 태도에 대한 평가와 묘사가 자못 흥미롭다. 한 사람을 두고 태도와 언어 사용이 '당당하다'는 쪽과 안하무인이라는 입장으로 극명하게 나뉜다. 이런 현상을 보면 당당하다는 말처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 드문 데도 불구하고 혼란스럽다. 당당함은 사전적 풀이에 의하면 사람이나 그 입장·태도가 남 앞에 내세울 만큼 떳떳하고 정대함이다. 반면에 오만함이란 사람의 태도나 행동 따위가 방자하고 건방지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면 차이가 분명해서 한 대상에 대해서 당당함과 오만으로 나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뛰어난 황제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크세르크세스 1세(BC 486~465)의 이야기는 인간의 오만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 준다. 유명한 다리우스 대제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는 용맹하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으로, 왕위에 오르자 이집트와 바빌로니아를 평정한 후 자신의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리스 정복이라는 숙원 사업을 시작한다. 살라미스 해전으로 알려진 그리스와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흔한 말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크세르크세스는 치밀한 준비 끝에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직접 전쟁에 나간다. 그리스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기 위해서, 수백 척의 배들을 연결해서 다리를 만들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날씨는 이 대담한 황제를 전혀 도와줄 생각이 없었던지, 폭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다리 구실을 해야 할 배들은 순식간에 부서지고 말았다. 이유가 무엇이든 자신의 일이 어긋나는 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참지 못하는 크세르크세스의 분노를 진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벌하고 잘못을 묻는 것뿐이었다. 감히 대왕에게 풍랑을 일으켜서 앞길을 방해한 죄로 바다에 채찍 300대를 내리치고 바다의 신을 꼼짝 못하게 결박한다는 뜻으로 불에 달군 족쇄를 바다에 던지게 했다. 그의 명령은 즉시 실행되었다. 자연 현상에 대한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벌하는 이 태도는 무엇인가? 난관에 직면해서도 물러서지 않는 자신감일까, 아니면 한계를 모르는 오만함일까?

그리스인들에게 크세르크세스의 모습은 그저 오만, 즉 히브리스의 극치였다. 오만은 우선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과잉된 자신감에서 나온다. 그리스인들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치지 않게' 사는 것을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면서 오만을 경계했다. 그래서 오만을 통제하는 개념을 신격화해서 응징의 신, 네메시스라고 불렀다. 자연 질서와 힘까지 마음대로 통제하려 한 크세르크세스에게 응징의 신, 네메시스가 들이닥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크세르크세스는 전쟁에서 결국 크게 패하고, 자신의 장군들과 병사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큰 소리로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말년에 들어서는 아들과 측근의 신하들이 결탁한 배신으로 왕위 자리까지 내주었다.

오만이란 '오만과 편견'의 작가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다. 권력을 가진 자가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뭉친 '당당한' 자세는 기실 오만의 뿌리에서 뻗어 나온 곁가지다. 이 문제를 크세르크세스의 과도한 자신감과 오로지 목표를 향한 질주에서 본다. 그러나 크세르크세스처럼 옳고 그름을 독단으로 결정하고 강행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아무도 가질 수 없다. 그런 권력이란 애초부터 없기 때문이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크세르크세스의 과시적인 행동을 '짐작건대 자신의 힘을 보여 주고 후세에 기념비로 남기고 싶어 순전히 과시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스스로 위대한 자가 되기 위한 영웅적 욕망에서 나온 행위는 당당함이 아니고 오만과 허영이라는 것이다.

당당함은 주어진 힘이라고 해서 그 힘의 밑바닥이 드러나도록 쏟아붓는 강단 있는 자세가 아니고 오히려 힘의 사용을 절제함으로써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당당함과 오만을 나누는 현실적 기준은 단순하다. 힘 있는 자의 당당함이란 들여다보면 오만함에 불과하다. 당당함이란 보통의 힘없는 사람이 힘 앞에서 주눅 들지 않는 것이다. 이제 힘의 잘못된 쏠림을 바로잡는 당당함을 회복해야 할 때다.

기 고

아이들이 행복한 '아동 친화 도시'를 꿈꾸며

임 택
광주 동구청장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지금을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개그 코너의 한 자리를 차지했던 노래로 기억되겠지만, 필자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다. 어릴 적 아침에 눈뜨면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동무들과 함께 뛰놀던 그 시절. 고무줄, 깡통,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놀이가 가능했던 그 시절이 마냥 그립기만 하다.

우리나라 아동의 삶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으나, 가족·친구와 보내는 정서적 교감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졌다. 이러한 시간·관계 결핍으로 인한 낮은 행복감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아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아동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여전히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동·청소년의 행복도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낮았고, 가구 형태별로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이 양부모 가정보다 낮게 나타났다. 아동을 훈육과 양육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해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다. 아동 관련 정책, 의사결정 과정 내에 아동의 입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참여권 제한 등 생활 공간 내에서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의 아동들이 언젠가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성세대들이 당장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더 행복한 환경에서 자란 아동들이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일굴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한 첫 번째 단추로 광주 동구는 지난 4월 유니세프(UNICEF)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다. 아동 친화 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 사회를 말한다.

동구는 이번 유니세프 인증으로 아동 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최근에 '동구형 아동 친화 도시 4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동구형 아동 친화 도시는 아이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면, 어른들 역시 행복하고 이는 지역 사회 전체가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구형 아동 친화 도시는 크게 생활 환경, 안전, 교육 환경, 보건·복지, 놀이권 보장을 위한 도시 공간 조성 등 5대 목표를 정했다.

먼저 생활 환경 분야는 거주 공간의 아동 친화형 눈높이 설계,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자연 친화적 공간의 조성과 설계에 목적을 두었다. 안전 분야는 '내가 만든 놀이터', 움직이는 신호등으로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을 추구하고, 교육 환경 분야는 '인문 도시 동구에서 키운 내 꿈', '재능 꿈나무 지원',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지원을 통한 참여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모든 계층이 체감하는 보편적 복지로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 지원 강화를, 마지막으로 놀이권 보장을 위한 도시 공간 분야로 동구형 아동 행복센터 건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제 동구는 동구형 아동 친화 도시 종합 계획을 밑바탕으로 예산 확보 등 세부 실행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할 일만 남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의 정신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는 말을 남겼다. 이는 우리 모두가 지역 사회 아동을 내 자녀로 인식하고 양육하려는 시각을 가질 때 비로소 '아동 친화 도시'로 가는 발판을 다질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아이들이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세상, 가족과 함께 화목한 저녁을 보낼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동구형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지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기 고

10월 26일, 기억해야 할 역사의 '그날'

양 근 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어느 누구에게나 가슴 뜨거워지는 '그날'이 있다. 각자의 삶의 이야기만큼이나 다양한 '그날'들이 존재한다. 누군가에게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날일 것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첫 아이를 품에 안았던 날이거나 혹은 10월의 마지막 날처럼 '그날'은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머문다.

필자에게는 10월 26일이 바로 '그날'이다. 필자의 가슴에 10월 26일은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역사적인 그날'이다.

올해로부터 422년 전인 1597년(선조 30년) 10월 26일(음력 9월 16일) 명량해전이 있었다. 음력 9월 16일은 가장 빠른 물살로 해남·진도 울돌목의 소용돌이는 더욱 거세졌다. 거친 소용돌이만큼 울돌목의 울음소리는 더욱 크게 들려왔을 것이다. 왜적의 군함은 133척. 우리 수군의 군함은 겨우 13척에 불과했다. 연이은 패전으로 병사들의 공포심마저 극에 달해 있었다.

하지만 이겨냈다. 지형과 조류의 흐름을 이용한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일본 수군은 절대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무려 31척의 군함이 파손되고 8000여 명의 병사를 잃고 도망치다 시피 퇴각했다.

충무공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군함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맞서 싸운다면 오히려 막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장계를 올리고 죽을 각오로 적에 맞서 싸웠다. 당시 조정의 대신들은 수군 폐지론을 운운하며 조선의 운명을 놓고 정쟁 중에 있었다고 하니 충무공의 외로움은 더욱 컸으리라 짐작된다.

이날의 승리로 인해 일본 수군의 서해 진출은 완벽히 차단되었고 훗날 임진왜란에서 일본을 퇴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역사학자들은 이 해전을 '명량대첩(鳴梁大捷)'이라 명명했고 우리는 이날을 명량대첩 축제를 통해 매년 기리고 있다.

이날로부터 312년이 지난 1909년 10월 26일 또 한번 '역사의 그날'이 시작된다. 오전 9시 30분 만주 하얼빈역에 세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을사늑약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가 쏜 총에 맞고 쓰러진 것이다. 권총을 발사한 후 '대한제국 만세'라는 뜻의 러시아어 '코레아 우라'를 목 놓아 부르짖다 체포되었다고 하니 안중근 의사의 우국충정(憂國衷情)이 느껴져 가슴 뜨거워지는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안타깝게도 안중근 의사는 의거일 이후 불과 5개월만인 1910년 3월 26일 일제에 의해 순국하셨다.

그로부터 다시 11년이 지난 1920년 10월 26일 또 한 번의 역사적인 그날이 있었다. 두만강 상류에 위치한 청산리 일대에서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대파한 날이다. 바로 '청산리대첩'이다. 1910년 강제합병 이후 무장 독립운동 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였다. 10월 20일부터 무려 6일 동안 10여 차례 밤낮을 쉬지 않고 일본군에 맞선 독립군은 독립을 위한 열망 하나로 백전불패의 신화를 만들어 냈다.

당시 일본군은 독립군을 소탕할 목적으로 2만여 명의 '월강추격대'까지 편성해 청산리까지 추격해왔다. 우리 독립군 연합부대는 마치 쫓기는 척 유인술을 펼쳐 일본군을 청산리 일대 '봉오골'로 유인해 그야말로 박살내 버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 다른 10월 26일은 우리 민족을 지켜낸 날들이다. 이날들이 있었기에 우리 국토에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말과 글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지 100여 일이 지났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펼쳐 왔다.

현재 일본산 화장품과 맥주의 매출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패션과 자동차 분야 또한 하락세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관광산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일본의 소도시들은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노력만으로 이루어 낸 결과이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10월 26일의 그날들을 기억하며 마음 속 깊은 우국지심(憂國之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33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선관위도 칼 빼든 광주 광산 '선거 범죄'

21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후보 예정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광주시 광산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불·탈법 모집이 바로 그러한 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 광주시당이 전수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한데 이번에는 선관위가 칼을 빼들고 나섰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광산갑뿐만 아니라 서구갑 선거구까지 '관심 지역구'로 지정했다. 관심 지역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선제적 예방·단속 활동과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이 지역에서 선거 범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맞춤형 예방 활동을 집중해서 전개할 방침이다.

이처럼 광산갑은 지난 7월까지 신규 모집된 1만여 명의 권리당원 중 9000여 명이 전수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관심 지역구로까지 지정됨에 따라 내년 총선 판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광주 8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종합한 결과 서구갑은 입후보 예정자들의 인지도 제고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전반적인 측정 지표가 가장 높았으며 광산갑의 경우 불법 권리 당원 모집 등의 위반 행위 신고와 제보가 빈번, 선거 과열 징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지역 한 정치 관계인이 제출한 권리당원 입당원서 수십여 장의 필체가 동일해 광주시당이 경고를 했으며, 한 주소지에서 무더기로 입당원서가 제출되는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는 충청도와 경기도 등지에 주소지를 둔 일부 유권자들이 광주시당에 전화를 걸어 "나도 모른 채 권리당원으로 신청됐다"고 항의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앞서 이 난을 통해 과열 경쟁에 따른 불·탈법 당원 모집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다. 앞으로 발생 가능한 공천 관련 금품수수 등 모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멧돼지 출몰' 지역 양돈농가 불안하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광주·전남 양돈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멧돼지 개체수가 크게 급증한 데다 번식기를 맞아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농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야생동물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전남 지역에는 모두 3만 3000여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0년 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개체수가 늘면서 포획된 멧돼지도 2016년 2646마리, 2017년 4357마리, 지난해 5564마리로 급증하고 있다.

이들 멧돼지는 먹이를 찾아 민가는 물론 돼지 사육 농장 주변까지 빈번히 출몰하고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농장 주변에 1.5m 높이의 철제 철조망을 두르는 '울타리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양돈 농장 520여 곳 중 철제 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21%(110곳)에 불과하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임시방편으로 자체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멧돼지 기피제 1692t을 양돈농가 주변에 살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발정기를 맞은 멧돼지에겐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야생 멧돼지의 접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철제 철조망 설치가 꼽히고 있다. 특히 10~11월 번식기에는 하루 최대 100㎞까지 이동하며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점에서 농장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들이 지역 내로 유입되거나 농장에 접근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지원을 늘려 울타리 설치와 개체수 감축 등 선제적인 조치를 서둘러 시행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노벨위원회의 통찰

"김대중은 강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인권을 제약하는 기도에 대항하는 보편적 인권의 수호자로 동아시아에서 우뚝 섰다. (중략) 김대중은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한 사이에 50년 이상 지속된 전쟁과 적대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북한 방문은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과정에 주요 동력(動力)이 됐다. 이제 한반도에는 냉전이 종식되리란 희망이 싹트고 있다. 김대중은 한국과 이웃 국가, 특히 일본과의 화해에도 기여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지난 2000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밝힌 수상 사유다.

특별한 것은 수상 사유 말미에 덧붙여진 설명인데 "노벨위원회는 북한과 다른 국가 지도자들이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라고 했다. 김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는 2000년 평양에서 열린 6·15남북정상회담에서 반갑게 손을 맞잡아 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함께 나서 준 클린턴 대통령과 모리 총리 등 미·일 양국 정상의 역할도 컸다는 평가인 셈이다.

평화상 수상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공로 평가도 빼놓지 않는 노벨위원회의 이 같은 자세는 올해 평화상 수상자인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머드 알리 총리에 대한 수상 설명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노벨위원회는 특히 "평화는 한쪽 당사자만의 행동으로는 일어설 수 없다. 아페웨르키 대통령은 아비 총리가 내민 손을 잡고 양국 평화 프로세스가 공식화하는 것을 도왔다"고 밝혔다. 아비 총리의 파트너로서, 피로 얼룩졌던 양국 관계에 평화를 정착시킨 에리트레아의 아페웨르키 대통령의 공로 역시 높이 평가한 것이다. "평화란 혼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상대편이 손을 맞잡아 주어야 한다"는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김 대통령이 평화상을 수상한 지난 2000년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 북한은 물론 일본·미국·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 노벨위원회의 사려 깊은 통찰을 전 세계가 되새겨 봐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이 든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33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